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하모니 전 세대 공감하는 공연 될겁니다

20~21일 '세시봉 친구들' 광주 공연 김세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걸.'

16일 오전 10시, 그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컬러링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영원한 소년' 가수 김세환. 오는 20일(오후 8시), 21일(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세시봉 친구들 두번째 이야기' 무대에 서는 그를 전화 인터뷰했다. 컬러링을 듣자마자 트레이드마크인 '소년같은' 웃는 모습이 떠올랐다고 했다. "내년이면 경로우대증이 나온다"며 웃었다.

첫 대회는 지난 2월 열렸던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공연으로 시작했다. 오페라 하우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연장 중 하나로 많은 예술인들이 서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다.

"사실 저희들도 거기서 공연을 할 줄은 몰랐죠. 저희들을 보고 싶었던 교민들의 성원 덕분에 좋은 공연장에서 좋은 무대 선보인 것 같아 저희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페라 하우스가 대관하기 정말 어려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 전부터 스케줄이 나와 있어서 '세시봉'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 듯해요. 홈페이지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세시봉'은 뭔가 했죠.(웃음) 티켓값(250~200달러)도 만만치 않는데 객석을 가득 채워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지난해에도 한번 호주 공연의 기회가 있는데 무산되어 안타까웠죠. 이번에 성사되어 교민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드린 것 같아 뿌듯하고 그러네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할 때는 더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교포들 사이에서 저희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CD로 구워서 돌려 보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군요. 동창들 모임이라든가 다양한 모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콘서트 감동

"송창식·정훈희 무대 기대하세요"

이 열릴 때면 함께 CD를 관람하며 옛날 시절 이야기하고, 젊었을 때 추억하면 아주 행복해진다고들 하세요. 앞으로 더 좋은 무대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김씨는 지난 2010년 MBC-TV '놀러와'에 나올 때만 해도 이런 열풍을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

"어휴, 이런 반응이 올 줄은 진짜 몰랐죠.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안 하려고 했어요. '놀러와'라는 프로가 젊은 연예인들 나와서 이야기 하고 그러는 프론트 노인들이 나가서 그게 되겠냐 그랬죠. 뭐 장수무대 같은 느낌이나 나고 그러지 않을까 했거든요. TV에서 제의받기 전에 이미 조영남씨가 MC를 보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번 해봤던 거라 뭐 그냥 한번 나가나 보자 그랬죠."

2시간 TV 출연 후의 후폭풍은 엄청났다. '세시봉' 열풍은 꼭 어린 세대들에게만 불었던 게 아니었다. 젊은이들 역시 음악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아무래도 저희 노래가 요즘 노래와 달리 서정성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요즘 음악에 지쳐 있어서 이런 것들에 푹 빠진 거 같기도 하구요. 저희가 TV에 출연하기 전에는 부모들

이 보는 프로그램, 자녀들이 보는 프로그램으로 세대간에 즐기는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었죠. 우리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다함께 TV 앞에 모여 앉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자부심도 느끼죠."

당시 젊은 시청자들이 몰랐던 것중의 하나는 무슨 노래든 아름다운 화음으로 '적절' 완성해내는 점이였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보니 자하는 음악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요. 기타 키만 던져주면 아카펠라부터 뽕짝까지 전 장르를 다 우리 스타일로 노래할 수 있죠. 요즘 젊은 가수들은 자기 분야에서만 잘 하지만 저희가 뭐 오랫동안 함께 했던 터라 그냥 몸에서 흘러 나온다고 해야 하나. 저희 세대는 팝송이 영어 선생님이었죠. 학교 영어 선생님들은 발음이 엉망이었거든요. 인터넷이 있어서 뭐가 있어요. 팝송 악보는 고사하고 가사 구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모르는 가사 있으면 지나가는 미국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작정 가사 따고, 막 비슷하게 따라 하려고 무지 애쓰고 그랬죠. 노인네들이 자연스럽게 팝송 부르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좀 신기해 하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세시봉'이라는 공간이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당시에 음악을 듣고 그립만한 곳이 거의 없었던 터라 세시봉은 절대적인 공간이었어요. 사운드라는 게 없었죠. 스피커 두개로 스테레오 음악을 듣는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일이었죠. 세시봉은 젊은이들의 발표장이었고 엔터테인먼트의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세시봉은 요즘 '따로 또 같이' 활동한다. 호주 공연과 지난 13일 열린 축제 행사에는 함께 무대에 올랐지만 광주 공연에는 김세환과 송창식, 미국 공연에는 윤형주와 김세환이 참여하는 식이다.

"윤형주씨는 사업이 바빠서 이번 광주 스케줄에는 합류하지 못했어요. 송창식씨는 외국 공연을 잘 안나가고 하죠. 미국 LA에서 다시 한번 하자고 제안이 오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송창식씨 없이 조영남씨와 미국 공연을 갔는데 조영남씨와의 화음도 좋지만, 아무래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우리 세시봉의 화음을 들려드리지 못한 건 좀 아쉽죠."

인터뷰 내내 "아, 이런 인터뷰는 윤형주씨가 잘하는데"라며 머쓱해하던 김씨는 광주팬들에게 초대의 말을 전했다.

"광주 공연에는 역시 세시봉 출신인 정훈희씨가 합류해 좋은 무대를 보여줄겁니다. 셋이서 함께 화음 넣어서 부르는 노래들도 의미 있구요. 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상벽씨가 사회를 보니 다양한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어 편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을 거예요."

티켓가격 11만 1000원~7만7000원. 문의 062-220-0541.

/김미진기자 mekim@kwangju.co.kr

두 사람 사이의 목은 인연, 극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 18일까지 동산아트홀

최근 1~2년 가장 인상적이었던 연극 가운데 한편인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연출 이형원)이 공연된다. 18일까지 오후 8시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작품의 출연자는 단 두명이다. 하지만 이 두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운은 관객들을 작품에 몰입하게 만든다.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해 있는 만화가 김종태의 집에 방문 판매의 일인자 양상호가 찾아온다. 양상호는 타고난 말발로 집요하게 김종태를 설득하고 결국 계약서에 서명한 김종태는 느닷없이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

이때부터 유쾌하게 흘러가던 작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뒀다. 두 사람 사이의 목은 인연이 점점 드러나면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양상호는 곤란한 지경에 빠진다.

2인극이다 보니 무엇보다 배우들의 역량이 중요하다. 광주 초연 때부터 양상호 역을 맡았던 노희철씨는 딱 맞춤형 배우며 김종태역



으로는 김성관씨가 출연한다.

이번 무대는 동산아트홀과 극단 크리에이티브드라마(대표 이형원)가 2012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000원. 문화관 홈페이지(www.usquareculture.co.kr)와 전화(062-360-8437)로 예매하면 5000원을 할인해준다. 문의 062-360-8437, 8435.

/김미진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미술협회, 천경자 화백 작품 조속히 반환하라

고흥군에 촉구... 미술인들 권익보호 적극 대응

한국미술협회가 고흥군을 대상으로 천경자 화백 작품 반환을 촉구하는 등 거들고 나섰다.

(대한미술협회는 16일 박병중 고흥군수에게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조속히 반환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5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내 미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기관인 미술협회가 천경자전시관 설치 협약에 근거한 고흥군의 작품 반환 결정에 감사 입장을 전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천 화백 측의 의견을 반영, 조속한 작품 반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미술협회측은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홍보 및 관광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지역 출신 예술가의 전시관 건립에 앞다 뛰고 나서면서 부실한 사후 관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천 화백 뿐 아니라 모든 미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미술협회 이진원 사무국장은 "고흥군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미술계 위상 제고를 위해서라도 부실한 사후 관리를 막을 관련법 제정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도 적극 나서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흥군은 기존 작품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작품 반환을 요구해온 천 화백 측과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오다 최근 작품(66점)을 돌려주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고흥군은 그러나 기존 작품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받은 작품들은 인도할 당시의 상태 그대로임을 인정한다 ▲작품을 인도받은 뒤 작품 상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작품을 인도받은 뒤에도 고흥군이 현재의 '천경자전시관' 명칭을 사용해 홍보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합의서 초안을 제시했다가 기증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천 화백 측이 지난 2007년 직접 리모델링 비용까지 부담하고 작품을 기증하면서 조성한 전시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미흡한 사후 처리로 갈등만 키우고 있는 고흥군의 허술한 일처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0,000원 /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죽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간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치아사제)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